

##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경제수장 간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의지 재확인

- '22.8월 이후 2년 만에 성사되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등 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정산제(郑栅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최상목 부총리 베이징으로 초청 -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24.5.16(목) 18:00(베이징 17:00),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

'22.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18차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郑栅洁)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간부들이 참석하였으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중 수교 32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이룬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하에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는데,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되어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온 점을 환영하였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촉진되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왔다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지금이 한중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해 나가는 한편,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산제(郑栅洁)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 말미에 양측이 편한 시간에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최 부총리는 초대에 감사로 화답하면서 회의가 종료되었다.

기재부는 오늘 회의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9.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7650)
		담당자	사무관	윤혜정 (bamto12020@korea.kr) 박영우 (paxkoreana@korea.kr)

〈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5.16.(목) 18:00~19:30 /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화상)
- (참석자) <sup>韓</sup>최상목 경제부총리 - <sup>中</sup>정산제(鄭珊潔) 발개위 주임
  - \* (한국측)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통상현안대책반장, 산업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 담당 국장
  - (중국측) 발개위 국제사·외자사·고기술사·환자사·사회사 사장(국장급) 등
- (주요 의제) 각국 거시경제 추세·정책 공유 및 개별 세션으로 ①경제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 ②공급망·신산업 협력, ③서비스 산업 협력 및 인구고령화 대응, ④기후변화 분야 협력, ⑤제3국 공동진출 논의

〈 주요 논의사항 및 성과 〉

- ① (거시경제 일반) 양국은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을 나누고, 내수 등 경기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을 상호 공유
  - 우리측은 양국 공통 관심사항인 ①지속가능 경제, ②부동산 PF 대응, ③청년 실업률 대책, ④출산을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 공유
- ②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간 뿐만 아니라,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에 처음 개최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와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의 성과를 공유 하며, 금년 하반기 중 각각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 ③ (공급망·신산업 협력) 경제와 공급망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전제 하에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
  -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존중 기반 하에 경제·산업·통상·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부 간 교류 지속 노력

- ④ (서비스 산업 협력 및 인구고령화 대응) 양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문화콘텐츠(게임·영화·방송 등) 및 관광 분야의 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도 우리측에서 제안
  - 중국측은 노인 요양 서비스 산업의 큰 시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양국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
- ⑤ (기후변화 분야 협력) 양국은 친환경·저탄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연구 협력과 황사·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우리측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산업정책 소개 및 협력 제안, 중국측은 대기 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계획' 지속 개최 제안
- ⑥ (제3국 공동진출)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사업을 재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 제3국 공동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간 소통·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

#### 〈 향후 계획 〉

- 양국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①합의의사록 및 ②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
  - 특히,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 중앙·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제협력교류회'와 양국 공급망 안정 방안을 모색할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기 위해 실무 논의를 이어갈 계획
- 차기 제1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5년에 중국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기로 합의
  - 정산제 주임이 최 부총리의 방중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성사되도록 실무협의를 돌입할 것

**1**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 존경하는 정산제 주임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국 대표단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 (15차) '18.2월(북경), (16차) '20.10월(화상), (17차) '22.8월(화상), (금번 18차) '24.5월(화상)
-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찐린; 近鄰)인 한·중이  
32년 지기 오랜 친구(라오펑유; 老朋友) 관계를  
유지해 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지난 17차 장관회의 성과 평가**

- 지난 17차 회의('22.8월)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 중국측 제안으로 작년 11월 개최(장춘시)된 제1회 「경제협력  
교류회」는 기업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 (한국측 참석자) 기재부 대외국장, 전라남도, 대구시 등, 현대차, 삼성SDS 등 40여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중국측 참석자) 지린성 부성장, 발개위 6명 국장, 비야디, 알리바바 등  
130여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

- 우리측 제안으로 개최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체로서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 \* 1차 회의 '23.2월(양국 공급망 정책 공유 및 문제 예방 노력 확인),  
2차 회의 '23.11월(중측 수출통제조치 우려 전달 및 한국기업 수출허가 지원 재확인)

- 오늘 회의가 그간의 실무적 논의를 보완·발전시키고 고위급 간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제고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3

### 韓·中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

-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92년 수교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 한·중 수교 30주년인 '22년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규모는 각각 역대 최고인 약 49배와 72배를 기록하였습니다.
- \* ('92년 대비 '22년 기준) 교역(수출+수입) 48.6배 ↑, 투자(In & Out) 72.1배 ↑
- 또한, 최근에는 교역 품목의 다변화와 배터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對韓 투자의 증가 등 교역·투자 관계의 질적 개선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양국 관광객 또한 올해 1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화적·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올해는 지난 3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 성장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 첫째,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은 악기들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한·중 공급망 관계 또한 넓고 깊은 양국 관계만큼  
촘촘히 이어져 있습니다.
  -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 특히,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둘째, 무역·투자 등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교류·협력은 무역·투자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확대·발전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진출의 장벽을 낮추고 신뢰 가능성을 높여 양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 5

### 맺음 말씀

#### □ 정산제 주임님과 양국 대표단 여러분!

- 글로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 강화는 역내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오늘 논의한 핵심 성과들을 잘 관리하여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길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